

호랑이 'V12' 불 밝혔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0일 조명탑이 켜진 챔피언스필드에서 러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KIA 김주찬, 이범호, 최형우 등 주축 선수들은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이날 야간훈련을 하며 야간 경기에 대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형우 등 주축 선수, 사직 시범경기 대신 챔스필드서 야간 훈련 타선 좋고 원투펀치 위력 여전...4·5선발 미정 임기영 복귀 속도

‘호랑이 군단’이 통합 2연패를 위한 불을 밝혔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조명탑을 켜고 2018시즌 개막에 대비한 야간훈련을 소화했다. 2연패에 도전할 ‘우승 멤버’들로 훈련조가 꾸려졌다. 이날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가 열렸지만, KIA는 주축 선수들을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2018시즌을 위한 큰 틀은 이미 확정됐고, 개막을 앞둔

만큼 후시 모를 부상에 대비한 방안이었다. KIA는 앞선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된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를 오후 5시에 치를 예정이었다. 야간 경기 적응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이날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조명탑을 밝히지 못했다. 대신 20일 챔피언스필드와 사직구장에서 동시에 야간 경기에 대비했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코우조 타격

코치와 김민호 수비 코치의 지휘 아래 주축 선수들이 야간 훈련에 나섰다. 사직구장에서는 오후 5시 시범경기가 진행됐다. 야간 경기를 위한 대비까지 끝낸 KIA는 오는 24일 예정된 kt 위즈와의 2018시즌 개막전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타선의 감은 좋다. 나지완을 필두로 최형우, 김주찬, 안치홍, 비나디나까지 시범경기에서 손맛을 봤다. 지난해 우승 멤버를

이끌었던 라인업과 화력은 여전하다. 마운드에는 고민이 남아있다. 현재 KIA 선발진 두 자리에 물음표가 쓰여있다. 지난 시즌 32년 만에 동반 20승을 합작한 양현종과 핵터의 기세는 여전하다. 팻딘도 스프링캠프의 부진과 부상을 딛고 시범경기 첫 출격에서 4이닝 8탈삼진쇼를 펼치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 선발 한 축을 담당했던 임기영이 어깨 통증으로 합류가 늦어졌고, 5선발 경쟁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마운드에 부상 선수들도 관심사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던 투수 중 윤석민, 심동섭, 홍건희, 한승혁, 임기영이 재활조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한승혁

이 먼저 1군 진입을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 오른쪽 내전근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귀국을 했었던 한승혁은 20일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임기영도 피칭 개수를 올려가면서 새로운 시즌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야간 경기 준비를 끝낸 KIA는 23일 새로운 시즌의 무사안녕과 우승을 기원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날 오전 11시 KIA 선수단은 챔피언스필드에서 2018시즌 안전 및 우승 기원제를 연다. 우승기원제에는 허영택 대표이사과 조계현 단장을 비롯해 김기태 감독 및 코칭스태프, 선수단, 프런트가 참석해 올 시즌 선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낼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몸값 1천억원 돌파”

국제스포츠연구센터 리서치 회사 예상 이적료 등 가치 평가

소속팀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에 나선 손흥민(26·사진)의 몸값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의 리서치 회사인 CIES 옵저버토리는 20일 유럽 5대 리그 이적 시장에 나온 선수들을 대상으로 예상 이적료 등 가치 평가를 했다. 이 평가서에서 손흥민의 예상 이적료는 9040만 유로(약 1194억원)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계약 기간 5년에 이적료 3000만

유로(397억원)를 기록했는데, 불과 3년 만에 몸값이 세 배 이상 뛰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대회에서 2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4골 등 총 18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 본인이 기록한 아시아 선수 유럽 5대 리그 한 시즌 최다골(21) 기록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8위를 달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 랭킹 '톱10'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골잡이 에덴 아자르(첼시), 리야드 마레즈(레스터시티), 웨인 루

니(에버턴), 가브리엘우 제수스(맨시티), 알렉시스 산체스(맨유)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년 정도 남아있다. 토트넘은 새로운 조건의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6만 파운드 수준이다. 한편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한 선수는 토트넘 해리 케인(1억9800만 유로), 2위는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1억9700만 유로)가 차지했다. 예상 몸값에서 영입 때 쓴 이적료를 뺀 금액인 '이적료 가치' 순위에선 손흥민이 로멜루 루카쿠(맨유)와 함께 공동 3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신태용호 완전체로 '월드컵 모의고사'

아일랜드 더블린 도착... 구자철 등 유럽과 합류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대비한 일정 평가전을 위해 유럽에 입성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밤(현지시간) 전지훈련지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도착했다. 일정 평가전에 나서는 23명의 대표선수 가운데 국내파 선수 14명이 인천공항에서 함께 출발했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구자철(아우구스부르크)이 경유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합류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토트넘)

과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비롯한 나머지 유럽파 선수들과 장현수(FC도쿄), 김승규(비셀 고베) 등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날 먼저 더블린에 도착했다. '완전체'가 된 대표팀은 20일 오후 아일랜드 축구 대표팀의 훈련장인 FAI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사흘간 더블린에서 훈련한 후 22일 북아일랜드와의 평가전 장소인 영국 벨파스트로 이동해 24일 원저파크 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4위인 북아일랜드를 상대한다.

이후 폴란드로 이동한 대표팀은 이틀간의 훈련을 거쳐 27일 호주프 실레시안 스타디움에서 FIFA 랭킹 6위의 강호 폴란드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월드컵 직전인 5월 네 차례의 평가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는 실제 월드컵에 나설 선수들이 최종 점검 차원에서 뛰는 경기인 만큼 이번 유럽 2연전이 사실상 마지막 '실함' 기회다.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상대인 스웨덴, 독일을 가상한 상대인 이들 두 팀과의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대표팀은 조별리그 통과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결링 스웨덴에 져 올림픽 설욕 실패

세계선수권서 7-9

여자결링 대표팀이 스웨덴에 설욕하지 못하고 2018 세계여자결링선수권대회 첫 패배를 당했다. 김은정 스케이이 이끄는 여자결링 대표팀은 2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 베이에서 열린 대회 예선 4차전에서 스웨덴에 7-9로 패했다. 안나 하셀보리 스케이이 이끄는 스웨덴은 지난달 25일 강릉결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전에서 대표팀을 8-3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 팀이다. 대표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결링 사상 최초의 메달인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지만, 스웨덴과의 결승전 패배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양 팀의 맞대결은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전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스웨덴의 초반 기세가 좋았다. 1엔드, 한국이 특점에 유리한 후공을 가져갔지만, 스웨덴이 3점을 스틸(선공 팀이 득점)했다. 한국은 2엔드 블랭크 엔드(무득점)를 만들고 3엔드 대량 득점을 노렸지만, 3엔드에 스웨덴이 2점을 또 스틸했다. 한국은 4·5·8엔드 2득점씩 쌓아나갔지만, 스웨덴도 5엔드 1득점, 7엔드 2득점으로 달아났다. 스웨덴이 9엔드 1점을 가져가면서 한국은 6-9로 밀린 채 마지막 10엔드에 들어섰고, 1점만 추가하면서 스웨덴에 승리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3연승 끝에 대회 첫 패배를 떠안고 대회 전적 3승 1패를 기록했다. 스웨덴은 5전 전승으로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MLB, 영국 간다

내년 런던서 양키스-브스턴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가 마침내 '축구 중가' 영국에서도 열릴 전망이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이자 맞수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2019년 6월 '축구중가' 영국의 런던에서 정규시즌 2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20일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시간으로 내년 6월 29일과 30일 영국 런던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양키스-보스턴의 정규 시즌 2경기를 치르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계획이 확정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성사되면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 열리는 첫 번째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가 된다. 두 경기의 홈 팀은 보스턴이 된다. 메이저리그는 오랫동안 런던에서 경기를 원해왔고, 지난해 올림픽 스타디움을 개칭 장소로 점찍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쓰인 올림픽 스타디움은 2016-2017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니티티드가 홈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애초 400m 트랙을 갖춘 경기장으로 지은 터라 런던 지역의 다른 구장들보다 넓어서 야구 경기를 치르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경기 개최 시기는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육상 대회 등을 개최하기 이전인 6월을 선택했다. 양키스와 보스턴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6만 달러(약 6400만원)씩을 받고 런던에서 뛰는 메이저리그는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경기 개최를 추진해 그동안 일본,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정규시즌 일부 경기를 치러 왔다. 올해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미네소타 트윈스가 4월에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에서 2연전, 다저스-샌디에이고가 5월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3연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